

ACTS29 성령집회 6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사야 30:15~22)

하용조 목사 / 2004년 10월 12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자녀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빛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10)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거절당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막고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훨훨 나십시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깨어지고 자아상이 바뀌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저가는 존재

에베소서 2장 19절~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스럽고 당당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닙니다. 천국시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얻어맞은 듯한 상처와 피해의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 속에 있는 찌든 사고가 빠지고, 생각이 순진하며 어린아이 같은 밝고 빛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순예배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불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굴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상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0장 15절에는 우리의 과거 모습이 세 가지 나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첫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미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 열등감으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녀가 거룩한 신부가 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어머니와 같은 그림을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며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17~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골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금이 놋을 대신합니다. 은으로 철을 대신합니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화평과 의를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의를 축복하십니다. 또한 구원과 찬송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19~20절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는 예전에 세상의 복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을 갖고 삽니다.

저는 21~22절이 여러분의 귀에 폭포수같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자녀가 잘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 이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내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은 내 상태입니다. 만약 옥토에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30, 60, 100배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평강이 비전이 100배로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설득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설득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자기 민족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잊어서 안 될 것은 말씀, 비전, 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정리=서철chol@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